

# 전남대-GIST, 의료시 등 특화 '의사과학자' 키운다

### 보건복지부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연구생태계 개발' 선정 사업비 10억 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공동학위제 도입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섰다. 6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의사과학자 연구생태계 개발' 부문에 선정돼 1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남대가 주관기관, 지스트가 공동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의료인공지능과 면역치료를 특화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

컨소시엄의 명칭은 'MAXIMUM (Medical AI-X, Immunotherapy-based Innovative Medicine for Unmet Medical Needs)'이며, 의료의 미충족 난제를 인공지능과 면역치료를 극복하는 첨단 융·복합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대와 지스트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폭발적인 성장이 의학적 난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 능력을 가진 의사 및 의학계 통찰력과 지식을 갖춘 과학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아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전남대 의과대학의 신진 교수, 전임의, 전공의가 미래의 의사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스트가 축적한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의 연구 역량을 접목한다. 전남대 의대와 전남대병원은 의생명 과학자들에게 관심 연구분야의 의학적 실무지식을 전수한다. 특히 두 대학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의사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과학적

학습과정을, 과학자에게는 고도의 의학 적 학습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후보 들에게는 스탠퍼드 의대, 피츠버그 의대, 하버드 의대 등 선진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MAXIMUM 사업단은 전남대 의과대학이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의사과학자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자질을 갖춘 젊은 의사를 의사과학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작업에서 9개의 컨소시엄을 심사해 전남대-GIST, 서울대-카이스트, 카톨릭대-포항공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김대이 기자

## '명문' 동신대 방사선학과 국시 4년 연속 100% 합격

#### 집중케어 프로그램·맞춤형 교육 등 성과

동신대학교가 방사선사 국가고사에서 '4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6일 동신대에 따르면 방사선학과 4학년 재학생 53명이 제52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은 78.3%다.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지난 49회부터 52회까지 4년 연속 100% 합격률을 보여주며 '실력 동신'의 위상을 입증했다. 2018년에는 전국 수석, 2022년에는 전국 차석을 배출해 '방사선학과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전원 합격의 비결은 집중케어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이다.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습 반올림 프로그램, 전공 멘

토-멘티 제도, 스터디 지정교수 제도, 그룹 스터디, 국가시험 전용 공부 등 체계적인 학습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RIS) 사업을 통한 '하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Ampli-Vacation) 융합에너지 전문지식 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성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국가시험 과목별 맞춤형 개인 특강을 진행하고, 다수의 모의고사를 시행한 후 분석 자료를 통한 개인 면담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이 큰 효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동신대 방사선학과는 취업 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졸업생들은 공무원·공공기관은 물론 서울대학교



동신대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기계를 작동하며 맞춤형 실습을 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제공)

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유수의 병원에 당당히 합격해 역량을 펼치고 있다. 송종남 동신대 방사선학과장은 "국

가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 국가시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실력은 물론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 '청렴 전남교육 실현' 도교육청 고삐 죄다

#### 불공정 근절·특별정책팀 등 추진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기관에 '불공정한 행위 엄중 조치 및 신고 안내' 공문을 전파하는 등 연초부터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민직선 4기 출범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강조해 온 교육감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더욱 청렴한 기관으로 재도약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특혜 제공, 항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각급 기관 교직원들은 청탁금지법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주저 없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중·하위권에 머물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지난해에는 3등급을 받았다. 이에 2025년 청렴도 상위권 재진입을 위해 청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렴특별정책팀을 신설해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달부터 청렴 TF(15명)를 구성해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 근원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개선 과제와 청렴 콘텐츠를 개발해 소관 부서에서 원활하게 청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대이 기자

##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가족체험 '인기'

#### 미술·뮤지컬·코딩·아로마 등 입소문 작년 2만8천여명 찾아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다. 6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유아들의 놀이 체험 지원을 위해 평일과 토요일(매월 둘째, 넷째주)로 나눠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술, 인형극, 뮤지컬, 음악회

등 실내·외 공연부터 전래놀이, 줄놀이, 코딩, 아로마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에만 유아 2천16명, 학부모 2천336명 등 총 4천302명이 참여했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가족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인성교육, 미술놀이, 수·과학놀이, 생태전환교육, 책놀이 등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사진> 또 지난해 8월에는 실외놀이터 영역

을 새롭게 단장하고 모래놀이, 자전거타기놀이, 터널, 그네, 목공놀이, 소꿉놀이 등이 가능한 체험시설을 구축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지난해에만 2만8천200여명의 유아, 교원, 학부모, 시민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선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도 많은 유아 가족이 참여해 호기심, 마음, 우주마음, 상상마음, 신나는마음, 음악마음 등에서 신나는 체험활동을 했다"며 "다시 찾고 싶은 교육시설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

**오시는 길**

무등경기장, 무수당, 미곡광장, 신세계백화점, 현대자동차구, 전일상사, 신세계백화점, 위디스, 중앙대, 광주지방법원, 오일고기